

2016학년도 경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2교시



◆ 유의 사항

1.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
2.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연필, 샤프 제외)만 사용할 것.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3.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4.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
6. 아래의 경우는 '0'점 처리함.
 - 양호 표시나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 또는 연필로 작성한 경우.
 - 적색 펜이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 (2교시)

[문항 1] **가**와 **나** 두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다**에 제시된 '심미적 경험'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데에 심미적 경험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술 하시오. (700 ± 50자)

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고등학교 문학 —

나



피카소, <게르니카(Guernica)>.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때에 독일 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이다. 피카소는 도시명을 제목으로 삼은 벽화에서 전쟁의 비극을 고발했다. 흑백 톤의 색조와 상처 입은 말, 여자들의 절규, 쓰러진 병사 등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

다

예술의 핵심은 아름다움, '미(美)'의 형상화에 있다. 이때 '미'는 작가의 창작을 통하여 구체화되지만, 이 아름다움의 세계는 독자의 마음속에 전이되어 독자에게도 새로운 미의식을 가지게 한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를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심미적 인식이라고 한다.

심미적 인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심미적 경험**이라고 한다. 심미적 경험의 대상에는 단순히 예쁘고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기괴한 것, 추악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심미적 경험을 통해 인간은 아름다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즉, 일상과 예술, 현실과 이상, 진부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경계에서 삶과 세계를 참되게 이해하고,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고등학교 문학 —

[문항 2] **가**에 제시된 일수 벌금제의 적절성을 **나**의 응보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벌금 제도에는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총액 벌금제가 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수 벌금제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전자를 택하고 있고, 서유럽 선진국들은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수 벌금제**(Daily Fines System)는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를 계산하여 벌금 일수를 계산하고, 1일 벌금액을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책정한 후 둘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인 안시 반요키 사례가 유명하다. 그는 50Km/h 제한 도로에서 75Km/h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과속으로 적발되어 14일분의 급여인 11만 6천 유로(약 1억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냈다. 이 제도는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3개국에서 20세기 초반에 도입됐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실시됐다.

— 고등학교 도덕 —

나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형벌적 정의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정의의 실현 방식이나 내용은 형벌 또는 처벌을 바라보는 관점 즉, 처벌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 이론은 일반적으로 **응보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응보주의에 의하면,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으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공리주의 형벌 이론에 따르면, 형벌이란 과거에 대한 응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이란 장래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형벌을 받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범죄를 혐오하게 하거나, 다시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